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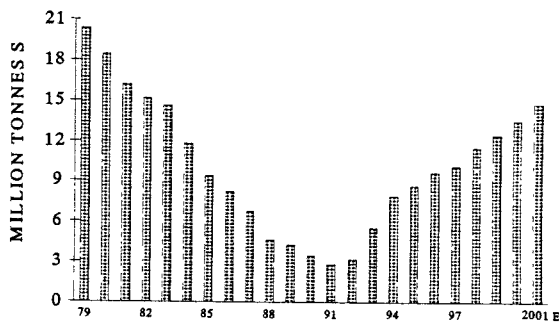
이 터미널은 미국 남부에 있는 재생 유황 생산업체들이 정제 시설과 자사 제품 중의 일부를 수출할 경우에 필요할 것이다.

-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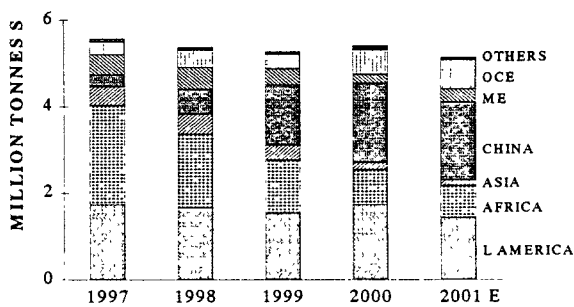
혼합 저장량에 대한 추가분은 130만톤, 즉 시장에서 매매되는 유황의 약 8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 저장량은 연말쯤이면 1,500만톤에 가까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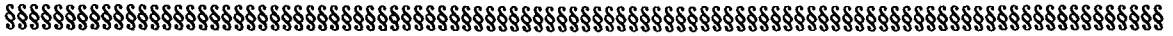
해외 수출량은 올해 51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5%가 줄어든 양이다.

< 캐나다의 유황 재고품 변동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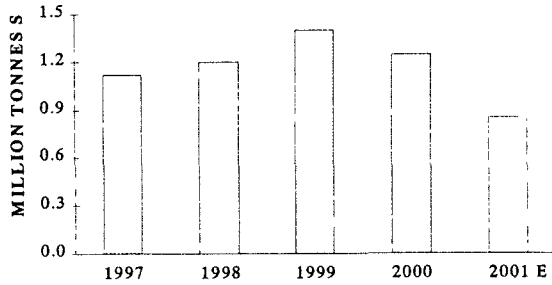


< 캐나다의 해외 수출량 변동 추이 >





<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유황 수출량(1월~9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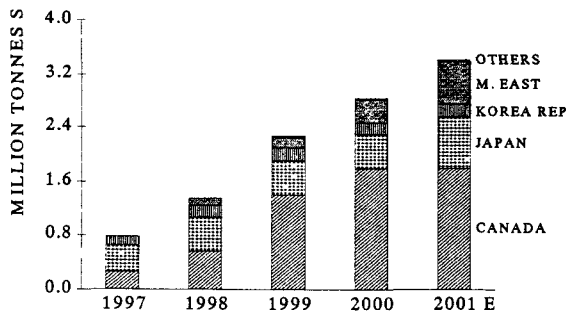
3/4분기까지의 미국에 대한 선적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만톤에 비해 80만톤에 달했다. 2001년 4/4분기의 선적물은 예상이 어렵다. 플로리다의 유황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서부에서 플로리다까지의 장거리 철도 수송과 밴쿠버를 통해 수출해야 하는 이전의 의무, 늘어난 유황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 재 용해시키는 탱크 비용 등으로 인해 공급 체계가 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 o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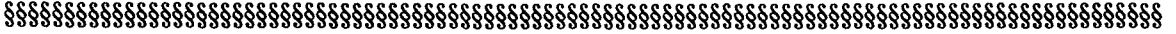
중국은 유황 잉여물량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다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유황 수입량은 지난해의 280만톤에 비해 올해에는 3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한 공급국가는 다시 캐나다와 일본이었다. 하지만 중동, 특히 이란에서 수입한 물량은 올해에 상당히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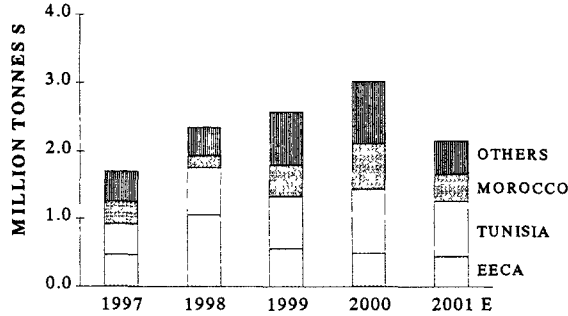
< 중국의 유황 수입량 변동 추이 >







< 러시아의 유황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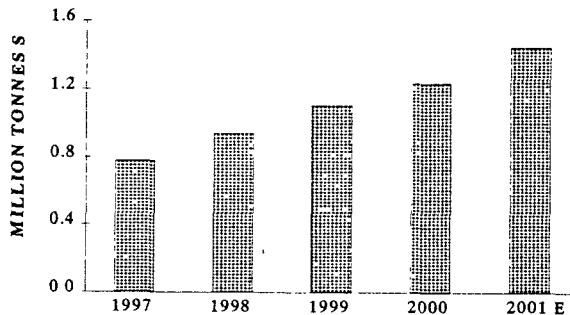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

TengizChevroil은 연산 8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Enersul GX 정제 시설 2곳을 주문했다.

2002년 4/4분기에는 유황의 해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석유 파이프라인은 현재 LPG와 유황의 수송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무료 철도 생산시설이다.

< Tengiz의 유황 생산량 변동 추이 >



유황 생산량은 80만톤을 초과하겠지만 TengizChevroil은 지역 시장에 대한 액체 유황 선적물을 소비할 것이다. 유황 생산량의 일부는 몇 개 지역으로 대량 공급될 것이다. 처리되지 않은 천연 가스를 재주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황 생산량은 지난해의 130만톤에 비해서 올해에는 1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9월 이후로 Jeziorko 광산을 폐쇄한 결과로 2002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Osiek 광산은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주로 내수시장에 유황을 공급할 것이다.







